

영암 대불산단, 스마트 그린산단 변신

130억 투입 통합관제센터 구축 ICT로 데이터 수집 관리·운영 재난·환경·교통 등 실시간 관제

서남권 최대 산단인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 안전 산업단지로 변모한다. 영암군은 '영암 대불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될 통합관제센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시뮬레이션, 가상·증강현실 등 ICT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운영하는 스마트산단 핵심 기반시설이다.

영암군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등 130억 원을 투입, 기존 CCTV통합관제센터를 안전·환경·교통과 중대재해 예방 최첨단 스마트 관제센터로 확장한다.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플랫폼으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각종 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개선에 나선다. 또 지능형 CCTV와 가로등, 스마트 환경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임직원들에게는 스마트 헬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암군은 기존 센터를 통합·확장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인력관리 효율화, 예산 절감 등의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영암군 전체의 교통·안전·환경 등을 실시간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도시로 확장해 나갈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병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유달산·북항 등 8곳 5년 경관계획 주민공청회

9월 용역 마무리 재정비 본격화

목포시가 유달산, 북항, 목포역 등 8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두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목포시는 지난 26일 목포 미식문화갤러리에서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경관법 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변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목포시만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담아내고자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재정비된 경관계획은 목포시의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유달산과 북항, 목포역 등 기존 8개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계획도 재



목포시가 연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주민공청회에서 시민들이 앞으로 5년간 펼칠 경관계획을 듣고 있다.

검토했다. 목포시는 요소별 경관 지침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이후 목포시의회 의결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9월 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초당대 인재양성 협약

신안군민 학생 4년 수업료 지원

신안군이 초당대학교(총장 박중구)와 교육교류 및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5일 맺은 협약에는 교육정책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상호 기관 주요 추진 사업 홍보에 대한 협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특별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초당대학교는 2025년부터 매년 초당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안군민 20명에게 4년간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군과 초당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잔류농약분석 능력 '우수성' 입증

국제숙련도평가 '만족' 판정

해남군이 국제숙련도평가(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 참가해 '만족' 판정을 받아 잔류농약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국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 비교 숙련도 테스트' 프로그램이다. 매년 세계 각국 정부기관과 대학, 민간 분석기관이 국제적인 분석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FAPAS에 참가, 측정분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39개 분석기관에 동일한 시료(고구마 퓨레)를 배포한 후 각 기관이 제출한 잔류농약 분석 결과값을 비교해 기관별 분석능력을 시험했다.

평가는 실험실 간 오차범위를 산정한 z-Score(비교평가) 값이 '±2' 이내면 만족 판정하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우수함을 의미한다. 해남군은 14개 성분 모두 0.1 ~ 0.7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비교평가값을 받아 국제적으로도 손색 없는 잔류농약 분석 신뢰도를 확보했다.

군은 해남 로컬푸드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지난 2018년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를 설립, 463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 연간 1500건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매년 전문기관의 교육에 참여해 최고 수준의 농약잔류 분석 능력을 유지하겠다"며 "안전한 해남군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기자 노트

5억원 들인 황량한 생활 밀착형 숲



정은조 전남총괄취재본부장

완도군이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의 하나로 고금면사무소 앞에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5억여 원을 투자해 500여 평 부지에 정원을 조성했지만, 1년도 안 돼 일부 나무가 고사 지경에 이르렀고 생육이 부진한 상태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번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고, 심을 나무 선정 역시 부실행정이 부른 '예견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완도군은 급변하는 기후와 이상기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다중이용 시설에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 공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이 사업에 착수했다. 군은 완도군산림조합과 공사 계약을 하고 호랑가시나무 등 군을 대표하는 나무를 심어 지난해 8월 말 공사를 완료했다. 지난 12일에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할 정도로 모습을 갖춘 상태이다.

하지만 완공한 지 10개월여가 지난 현재 정원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 주민이 원했던 수종은 거의 없고 작은 나무들만이 있어, 그늘조차 없는 '황량한 공원'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또 주차장에는 잔디를 심었으나 막상 나무가 있는 화단에는 잔디가 없어 심어놓은 나무들마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게 주차장이지 5억 원을 들인 공원이라는 비아냥까지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번 공사를 두고 도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했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고 보고 있다. 관행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보다 업체의 입장이 많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완도군은 다른 지역 업체가 입찰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적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지역 업체인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올해 노후면은 이와 같은 사업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해 군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공사를 시행한 산림조합 측은 기본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역민의 여론에 대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서 고사한 나무가 발생하면 다시 심으면 된다며 쉽게 말을 하고 있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면 사과하고 즉각 조치하는 세상이нде 말았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사가 잘 안 돼 하자 보수를 하게 되면 혈세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제라도 지자체와 시행업체 모두가 이번 공사가 계획대로 잘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ejhung@kwangju.co.kr



목포해양대-목포신항만,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 협약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목포신항만운영(주)와 '2024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 추진, 미래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화,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은 "미래 물류산업의 기반이 될 스마트항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며 "스마트항만 구축과 지역 항만물류 산

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중구 목포신항만운영(주) 대표이사는 "목포신항만운영과 목포해양대가 스마트항만으로의 산업전환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포해양대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직무 전환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